

22012148  
C반 이지성  
SAU성공학 레포트 과제

읽고난 전체 소감은 이랬다.  
이 책안에있는 이야기는  
한사람의 이야기이자,  
이 사람이 몇십년 살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잘 간추려서 낸,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자신만의 길, 신념, 의지를 찾아볼수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사람 저사람들의 이야기, 조언등을 듣고  
크게 만족했다.  
그리고 놀랐다.  
이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로만 구성된 책 한권이  
사람을 움직일수있구나 하고 한번놀라고,  
이 이야기는 이야기 뿐만 아닌 그속에서 얻은 교훈과 자신의 생각 등을 써놓았으니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구나 하고 다시 놀라게됐다.

가장 인상깊게 읽었던 곳은 1장이다.  
1장은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을 인상깊게 읽었느냐,  
사실 2장 3장 4장 같은 경우는 조리란 무엇인가, 조리사가 해야할 일, 조리사가 되기위해 필요한것, 등등이 있지만,  
1장은 저자만의 이야기로써, 저자가 젊었을때의 이야기, 조리사시절의 이야기, 교수시절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인상깊게 본 이유는  
아무리 형식적인 메뉴얼, 계획표, 이런것들을 봐도  
결국 그건 형식적인 것이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는것이다.  
조리사가 되기위해 필요한것, 해야할일을 아무리 알고있어도  
정작 실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것처럼 말이다.  
이사람이 조리사로써, 또는 교수로써 어떤 인생을 겪어왔는지가 사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된거같다.  
직접 호텔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이 요소들이 형식적인 메뉴얼 보다는  
더 중요한듯 싶기에 인상깊게 보았다.

4장의 5번과 9번을 보았다.  
5번은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 있다 였고, 9번은 시합하기 였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 있으며  
그 일은 재능으로만 매꿀수있다. 라는 이야기였고,  
9번은 아무리 싫증나는 일이어도  
좋게 마음먹고 계속 하다보면 어느새 나는 그 일에 최고점에 있을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다.  
이 두가지를 보면서 약간 모순점을 느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것이 있는데  
그 안되는것도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그 일에 정점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했다.  
모순이다.  
조리사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티비 프로그램이나 그런데에서 보면  
나이도 어린데 나보다 요리를 잘하는 어린아이들도 보이고,  
다른 티비를 틀어보면 한분야에서만 40년가까이 종사하여  
어느새 대가 라고 불리는 위치에 서있는 한사람을 볼수있었다.  
나도 재능이없지만, 잘하지는 않지만  
난 이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놓치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나도 높은곳에 올라가있지않을까 생각이든다.  
사실 난 신안산대학교를 면접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면접에서 했던말도 이렇다.  
뱃줄은 끝까지 놓치않는 사람만이 높은곳에 올라갈 자격을 얻는것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잠깐 쉬어도 괜찮으니 포기하지만 말자, 하고.  
그 뱃줄에서 천천히 올라가면  
언젠간 결승점에 올라가있겠지.  
남들보다 느려도, 골인 할순있다.  
이것이 노력이라 생각한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느꼈다.  
**나도 할수있다고.**